

자기를 부인,
오직 주님만 따르기

¹⁸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¹⁹대답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더러는 옛 선지자 중의 한 사람이 살아났다 하나이다 ²⁰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시 니이다 하니 ²¹경고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명하시고 ²²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린 바 되어 죽임을 당하고 제삼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²³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²⁴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눅9:18-24)

시험 중에 있는 사람의 경우, 겉으로는 마치 자기 힘으로 싸우는 것처럼 보여도 실상은 오직 주님이 직접 그를 위해 싸우십니다. 이것이 영적 실상이며, 사람들은 이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이 그를 위해 싸우시면 그는 모든 것을 이깁니다. 오늘날에는 극소수의 사람들에게만 시험이라는 게 허용되는데요, 사람들이 신앙의 삶 가운데 있지 않고, 그 결과, 진리에 속한 양심 안에 있지 않기 때문인데, 사람이 선한 삶을 통한 진실한 양심 안에 있지 않으면 그 사람은 모든 시험에서 지며, 그로 인해 이어지는 그의 상태는 전보다 더 악화됩니다. (AC.8159:5) *But be it known that in temptations the man does not fight; but the Lord alone fights for the man, although it appears as if it were done by the man; and when the Lord fights for a man the man conquers in all things. At this day few are admitted into temptations, for the reason that they are not in the life of faith, and therefore not in the conscience of truth; and he who is not in the*

눅9:18-24

‘자기를 부인, 오직 주님만 따르기’

conscience of truth from the god of life, yields; whereby his subsequent state becomes worse than the former. (AC.8159:5)

이 내용은 스페덴보리 저, ‘천국의 비밀’(Arcana Coelestia) 8159번 글 다섯 번째 항 인용이며, 이 글은 출애굽기 14장 10절,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중,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And Pharaoh drew nigh)에 관한 속뜻 주석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말씀에는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많은 무리를 가르치시고, 기적을 행하시는 모습이 여러 곳에 나옵니다. 기록에 의하면 주님이 가시는 곳마다 수천 명 또는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이 주님께로 몰려와 말씀을 듣고 기적을 목격했다고 말합니다. 그토록 많은 사람이 주님을 따랐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주님의 말씀이 이제껏 들어본 적 없는 진리의 말씀이었고, 무엇보다도 그 말씀과 행

동에 권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많은 사람이 말씀을 듣고 기적을 체험했지만 정작 주님이 어려움에 처하시자 모두가 주님을 떠나버렸습니다. 그리고 아주 적은 소수의 사람만이 주님의 고난을 지켜봤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일은 그렇게나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3, 4절에서 주님은

¹³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¹⁴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람이 어떻게 하면 주님으로부터 생명을 얻을 수 있으며, 주님을 끝까지 잘 따를 수 있는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¹⁸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우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¹⁹대답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더러는 옛 선지자 중의 한 사람이 살아났다 하나이다 ²⁰

‘자기를 부인, 오직 주님만 따르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니

주님은 제자들에게 ‘우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물으십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은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더러는 옛 선지자 중의 한 사람이 살아났다 하나이다’라고 대답합니다. 주님은 계속해서 이번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다시 물으셨고, 그때 베드로가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라고 대답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신앙인의 내면에 있는 진리의 지식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속뜻으로 보면, 무리와 제자가 따로 있는 게 아닌데요, 신앙인의 내면에 있는 진리의 지식들이 무리이며, 제자들은 이 무리를 가르치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 안에 함께 계시면서, 믿음을 통해 우리를 가르치시는 진리 그 자체인 분이십니다. 그러면 무리로 표상되는 지식들은 어떤 것입니까? 책에서 읽은 지식일 수도 있고, 말씀을 통해 배운 지식이기도 합니다. 또는 다른 사람들에게서 들은 지식들

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엘리야라고도 했다고 합니다. 그것은 신앙인들이 그러한 지식들을 통해서 주님이 곧 말씀이라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과 엘리야는 말씀을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천국의 비밀’ 30번 글에서는, 처음 거듭나기 시작할 때의 믿음을 ‘지식적인 믿음’(first by faith of the memory, which is a faith of mere knowledge [fides scientifica])이라고 합니다. 즉 여러 경로를 통해 얻은 지식을 여과 없이 그냥 진리로 받아들인 상태의 믿음이 바로 지식적인 믿음입니다. 따라서 주님에 대한 무리의 인식은 지식 차원의 믿음입니다. 그러나 이 지식 차원의 믿음은 진정한 믿음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것은 어쩌면 맹목적인 믿음과 같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이번에는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주님의 제자 중 하나인 베드로가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대답합니다. 여기서 주님

‘자기를 부인, 오직 주님만 따르기’

의 제자나 베드로는 모두 믿음을 나타냅니다. 그러므로 베드로의 고백이야말로 본격적인 신앙고백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진리’라는 뜻입니다. 주님은 진리 그 자체이신 분이데, 이 진리는 선(善, Good) 그 자체이신 여호와로부터 나오는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베드로의 고백 안에는 많은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즉 주님 안에 여호와가 계신다는 것과, 그러므로 주님은 당신 안에 선 그 자체이신 여호와로부터 비롯된 진리 그 자체이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 이다’라는 고백 안에 내포되어 있는 의미입니다. ‘천국의 비밀’ 30번 글에는 계속해서 이러한 믿음을 ‘지적 믿음’(next by faith in the understanding, which is an intellectual faith)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지적, 지성적 믿음은 방금 말씀드린 지식 차원 믿음보다는 좀 더 발전된 형태의 믿음입니다. 왜 지적인 믿음, 지성적 믿음이라고 하나면, 진리를 자신의 이성을 통해 충분히 사유(思惟)한 다음 얻은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본격적인 믿음이

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제자들은 주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주님께서 이렇게 차례로 물으신 것은 신앙인들의 믿음의 상태가 어떻게 발전되고 있는지를 주님께서 살피시는 걸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그 믿음의 정도에 따라 주님으로부터 그의 내면으로 생명이 흘러 들어가 그를 살리시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살리십니까? 그의 내면에 있는 지식적인 것들을 주님의 생명으로 깨우시고, 그렇게 해서 살아있게 만드십니다. 사람의 내면에는 여러 가지 지식들이 있습니다. 진리인 것도 있고, 진리 아닌 것도 있습니다. 또 같은 진리라 하더라도 행동하는 진리가 있고, 행동하지 않는 진리가 있습니다. 진리인 줄 알면서도 행동하지 않는다면 살아있는 진리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러한 진리들을 깨워 살아있는 진리, 행동하는 진리로 만드는 힘이 바로 주님으로부터 흘러들어오는 생명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늘 우리와 함께 계시려고 하고, 당신의 생명을 우리의 믿음 가운데로 보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²¹경고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자기를 부인, 오직 주님만 따르기’

이르지 말라 명하시고

베드로의 대답을 들으시고 주님께서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당신 안에 사랑 자체이신 여호와가 계시고, 그 사랑으로부터 나오는 진리가 바로 주님 자신이라는 사실을 왜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셨을까요? 본문에서 ‘아무에게도’라고 할 때 ‘아무’, 즉 ‘사람’은 거짓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말씀에서 ‘사람’은 보통 진리를 나타내지만, 여기서는 거짓을 뜻합니다. 따라서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신 것은 거짓에 의해 진리가 훼손될 수 있음을 경계하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세상에 계시는 동안 당신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직접적으로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만약 공공연하게 당신이 하나님이라고 밝히셨다면 유대인들은 주님을 바로 해쳤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대 율법에 따르면 그것은 신성을 모독하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렇게 되면 주님의 모든 계획이 무산될 수도 있었습니다. 주님은 정해진 때가 이를 때까지 말씀의 모든 것들이 이루어야만 했습니다. 말씀의

모든 것을 이루신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말씀 속에는 주님이 세상에 오셔서 지옥과 싸워 이기시고, 당신의 인성(人性, human essence)을 영화롭게 만드시는 모든 과정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을 이루셨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얼핏 보면 평온해 보이는 일상이었지만 그런 중에도 주님은 내적으로는 아주 치열하게, 리얼하게 싸우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자 마지막 시험인 십자가의 고난 가운데로 스스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2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2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린 바 되어 죽임을 당하고 제 삼 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그때까지는 당신이 하나님이라는 사실 밝히시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고난을 당하신 모든 기간은 주님의 불안정한 인성을 거룩한 인성(신적 인성, Divine Human)으로 만드는 과정이었습니다. 우리 신앙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면에 진리가 충분히 성숙되기 전에는 진리를

‘자기를 부인, 오직 주님만 따르기’

너무 많이 말하는 것이 좋지 않습니다. 진리인데 왜 떳떳하게 말하지 못하느냐? 이렇게 반문하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이 충분히 성숙되지 않은 사람이 진리를 너무 많이 말하면 그로 인해 진리의 성장이 멈출 수도 있습니다. 성직자들처럼 직업적으로 진리를 전해야 하는 경우는 다릅니다. 그러나 그들 역시 주님이 주시는 말씀만을 전하고자 하는 치열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사실 거듭나기 전에 우리가 말하는 진리 중에는 진리라고 볼 수 없는 것들이 많습니다. 진리는 말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내면에 있는 진리들이 성장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서는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신 것입니다.

23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진리는 말하는 것보다 행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주님께서서는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라고 하십니다. 그

러나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말합니까? 자기를 먼저 사랑하라 외칩니다. 내가 나의 자존감을 세우지 않으면 누가 나를 세워주겠느냐고 합니다. 얼핏 보면 일리 있어 보이는 말이지만, 그것은 하늘에 뜻을 두지 않고 세상에 뜻을 두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모든 악하고 거짓된 것들이 자아로부터 나옵니다.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으려는 마음, 그 자신을 높이지 않을 때 그 사람을 미워하고 저주하는 마음, 이웃의 불행을 즐기는 마음, 다른 사람들을 지배하려는 마음, 이러한 모든 악들이 자아 사랑으로부터 나옵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모든 악의 근원인 자아를, 자기를 부인해야 합니다. 자아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르려 할 때 내면에서 싸움이 일어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까지 물질적인 것만을 좇던 습관들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 습관들이 주님의 뜻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을 계속 공격합니다. 그래서 내면에서 싸움이 일어납니다. 바로 그 싸움이 우리가 감내해야만 할 십자가입니다. ‘천국의 비밀’ 8159번 글에는 ‘시험 중에 있는 사람의 경우, 겉으로는 마치 자기 힘으로

‘자기를 부인, 오직 주님만 따르기’

싸우는 것처럼 보여도 실상은 오직 주님이 직접 그를 위해 싸우십니다. 이것이 영적 실상이며, 사람들은 이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천 년 전이나 지금이나 주님은 우리를 위해 홀로 싸우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인간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싸우시도록 나를 죽이는 일입니다. 우리가 나를 죽이지 않으면, 주님이 지옥과 우리들의 싸움에 개입하실 수가 없습니다. 우리 자아가 주님을 단단히 막기 때문입니다. 나를 죽여야, 즉 자기를 부인해야 주님께서 오셔서 싸우실 수 있고 싸움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죽이는 일은 우리들의 영적 싸움에 주님을 초대하는 일입니다.

²⁴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앞에서 말한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

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는 말씀과 비슷한 말씀입니다. 사람의 진정한 목숨은 육의 생명이 아니라 영적인 생명입니다. 육의 생명은 심장 박동과 폐의 호흡입니다. 그러면 영적 생명은 어떤 것입니까? ‘계시록 해설’ 750번 글 여섯 번째 항에, ‘사람에게는 두 가지 생명의 기능이 있다. 하나는 이해(understanding)의 기능이고 다른 하나는 의지(will)라는 기능이다. 이 두 가지 기능이 사람의 영적인 생명을 이룬다’(Since man has two faculties of life, namely, a faculty to understand and a faculty to will, and these two faculties constitute the spiritual life of man,)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 있는 진정한 생명은 진리를 이해하는 능력과 그 진리를 의도하고 행동하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생명의 기능이 있어서 사람은 주님으로부터 진리와 선, 곧 믿음과 인애(charity)를 받아 영원히 거듭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 ‘제 목숨을 잃으면’은 영적인 생명을 버리라는 것이 아니고, 자아의 생명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는 자라야

눅9:18-24

‘자기를 부인, 오직 주님만 따르기’

진정한 생명인 영적 생명을 얻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세상에 계실 때, 많은 사람이 주님을 구름처럼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마지막 순간을 지켰던 사람들은 주님의 제자 요한과 주님을 사랑하는 여인들 몇 명뿐이었습니다. 왜 그들은 주님을 끝까지 따르지 못하고, 도중에 뿔뿔이 흩어져 버렸을까요? 그들에게 진실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진실한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주님의 생명이 흘러들어오지 않으며, 그러므로 갱생의 기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주님을 끝까지 따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 자기를 부인하고 자신의 십자가를 지는 사람만이 날로 믿음이 굳건해 집니다.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수없이 많은 욕망과 이웃에 대한 증오들이 모두 자아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것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끊임없이 물리쳐야만 합니다. 그것은 자기와의 치열한 싸움입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험은 새 교회 사람

들이 계명에 따라 사는지 그리고 주님에 대한 믿음이 얼마나 있는지 점검하는 수단이다.’ 그렇기 때문에 계명에 따라 사는 사람, 주님을 진심으로 믿는 사람은 반드시 영적 시험 과정이 있습니다. 이 말씀에 귀 기울이지는 모든 분들이 주님을 위해 자기를 부인하는 그런 사람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³⁷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³⁸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마22:38)

아멘

원본

2019-05-12(D1)

서울 새 교회 이순철 목사

설교

2023년 5월 19일(D6)

한결같은 교회 변일국 목사